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 내의
주요 논쟁점들

12~13면

북한 전투병
우크라이나
파병설

3면

이스라엘의
가자·레바논 전쟁과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

2, 3, 4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이-팔 휴전 촉구
결의안 발의

6면

일본인
청년 사회주의자의
《반일 종족주의》 비판

14면

재한
이집트인 난민
인정 투쟁

16면



이슬람 혐오는
무엇이고
왜 잘못됐나 8~11면

윤석열이

무기 지원한다면

서방 제국주의

지원하는 것이다

관련 기사 3, 4면



광란의 인종 학살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인들은 무릎 꿇지 않는다

김인식

하마스 지도자 야흐야 신와르 피살 뒤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가자 휴전 협상이 재개됐다. 이스라엘 정보국장과 미국 중앙정보국장이 카타르 총리를 만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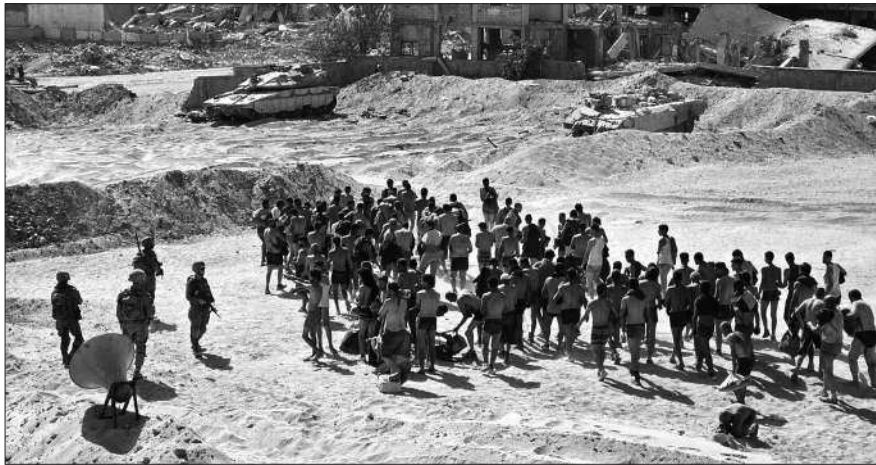
이집트 독재자 엘시시도 가자지구에서 이틀간의 휴전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마치 전쟁의 책임이 하마스 등 팔레스타인 저항 세력에 있다는 듯이 굴고 있다. 그러나 네타냐후 정부야말로 휴전에 동의할 생각이 없다.

그렇기는커녕 가자지구에서 인종 학살을 격화하기 위해 광분하고 있다. 거주지 폭격, 민간인 살해, 학교와 병원 파괴, 봉쇄와 구호품반입 차단을 통해 굶겨 죽이기, 대량 체포와 처형을 자행하고 있다. 가자지구를 더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드는 게 이스라엘의 전략이다.

역사적으로 저항하는 피억압 민족을 지배했던 식민 통치자들이 그랬듯이,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인들 속에 또 다른 야흐야 신와르가 있을까 봐 노심초사한다. 이스라엘 자신이 그 어떤 성공도 일시적임을 잘 알기에 학살을 결코 멈추지 않는다. 2023년 10월 7일 이전보다 더 안전해지기는커녕 도처에 위협이 있다.

야흐야 신와르는 다른 하마스 전사들처럼 이스라엘에 맞서 영웅적으로 싸우다 장렬하게 죽었다. 신와르는 단



가자지구 북부 카말 아드완 병원에서 환자와 병원 직원을 나체로 끌고 가는 이스라엘군

지 지하 터널에 숨어 있지도, 이스라엘 인질들을 인간 방패로 삼지도, 심지어 해외로 도망치지도 않았다.

야흐야 신와르는 이스라엘군의 탱크와 미사일 포격으로 오른팔에 부상을 입었음에도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군의 드론을 향해 막대기를 던졌다. 그 뒤 이스라엘군의 저격수가 신와르를 사살했다. 신와르는 숨을 거둘 때까지 이스라엘군에 맞섰던 것이다.

1987년 제1차 인티파다(항쟁) 때 이스라엘군 탱크를 향해 돌을 던진 소년은 팔레스타인 저항의 상징이 됐다. 그로부터 37년이 지난 지금도 팔레스타인인들은 굴복하지 않고 계속 저항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전쟁 범죄가 팔레스타인뿐 아니라 아랍 세계와 그 너머에서까지 새로운 세대의 저항을 촉발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한다.

이스라엘의 유일한 해결책은 팔레스타인인의 말살이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북부에서 “장군의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 이 계획은 팔레스타인인들이 있는 장소를 “정밀”하게 찍어 공격하는 것이다.

지난 일요일(10월 27일) 하루 동안 이스라엘군은 가자 북부 베이트 라히야에서 최소 5채의 주택을 표적 공격했다. 또, 피란민이 몰려 있는 유엔 학교를 표적 공격해 최소 9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다.

이 계획을 주도하는 이스라엘 국가안보위원회 전 위원장 지오라 예일란드는 이렇게 말했다. “포위 공격은 적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정당하고 타당한 조치다.” 무고한 팔레스타인인이란 것은 없고, 팔레스타인인은 모두 군사적 목표물이라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10월 들어 3주 동안 가

자지구 북부에서 벌인 군사 작전으로 1000여 명이 사망했다. 대부분은 여성과 아이였다.

또, 이스라엘은 10월 1일부터 지금까지 가자지구 북부를 봉쇄하고 포위해 구호품(물, 식량, 의약품, 연료)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10월 28일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는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UNRWA)가 이스라엘 영토와 점령지 팔레스타인(서안과 가자)에서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이 실행되면, 팔레스타인 난민 300만 명에게 교육·의료 서비스와 직업 훈련을 제공하는 이 기구의 능력이 심각하게 약화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가자 북부의 팔레스타인인들을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게 만들어 가자 남부로 대거 쫓아내려고 이토록 잔인한 포위 공격을 하고 있다.

이스라엘군이 10월 21일 베이트 라히야 난민 보호소에 들이닥쳐 총구를 들이대고 남자들을 가족에게서 떼어놓는 장면은 충격적이다. 이스라엘군은 여성·아이·노인들에게 남쪽으로 이동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1년 넘게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인들을 굴복시키려고 갖은 악랄한 짓을 다했다. 어떻게든 팔레스타인인들을 체념하게 만들고 이간질시켜 무릎을 꿇리려 했다.

이스라엘의 현재 광분은 그런 극악 무도한 만행의 연장선이다.

레바논인들을 분열시키려고 마을을 폭격하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레바논 민간인들에게도 똑같은 학살을 자행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지상전은 현재 진전이 없다. 그러나 이스라엘군은 날마다 레바논 아파트와 마을을 폭격하고 있다. 벌써 150만 명이 레바논 안팎으로 피란을 떠났다.

이스라엘은 한 나라 전체를 위협 세력으로 취급한다. 그리고 가자전쟁의 실패를 답습한다.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은신해 있다며 병원들을 공격했다. 이번에는 레바논의

한 병원에 헤즈볼라의 자금이 숨겨져 있다며 폭격을 위협했다.

또한 이스라엘은 레바논 전역의 헤즈볼라 연계 금융기관인 알카르드 알하산 시설 30곳가량을 폭격했다. 알카르드 알하산은 “자애로운 대출”이라는 뜻으로 레바논 금융시스템 밖에 운영되는 비영리 자선 기관이다. 이스라엘은 가난한 레바논 사람들의 돈을 날려 버리겠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마을 폭격이 노리는 목표는 공포를 조장하고 레

바논인들을 분열시키는 것이다.

2006년 레바논 전쟁 때 기독교인, 수니파 무슬림, 시아파 무슬림 등 상이한 종교 공동체 간의 단결이 이스라엘군을 패퇴시키는 데서 중요한 구실을 했다. 기독교 마을은 남부에서 피란 온 시아파 무슬림들을 환영하고 거처를 마련해 줬다.

지금 이스라엘은 피란민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면 공동 처벌(연대책임)을 받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려고 마을들을 선제 공격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전쟁 확대는 이스라엘의 해결책이 될 것인가? 바이든은 야흐야 신와르 피살을 축하하며 가자 전쟁의 종전 계기로 삼으려 했다. 그러나 네타냐후는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10월 21일 미국 국무장관 앤터니 블링컨은 또다시 이스라엘을 방문했다. 지난해 가자 전쟁 발발 후 11번째 방문이었다.

블링컨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갈등에 대한

“외교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블링컨이 23일 떠나자마자 이스라엘은 개전 이래 레바논에 가장 광범한 대피령을 발령하고 남부 도시 티레를 공습했다.

블링컨은 이스라엘군이 완전히 에워싼 가자 북부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거듭 압박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자 북부에 대한 포위 공격을 강화했다.

미국이 한 손으로는 휴전을

▶ 3면으로 이어짐

북한 전투병 파병 기정사실화하며 서방 제국주의 지원하는 윤석열 정부

한국과 우크라이나 정부의 북한 전투병 러시아 파병설 띄우기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주말부터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는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이 전투 지역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국 윤석열 정부도 북한 전투병 파병을 기정사실화하며 10월 22일에는,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북한의 전투병 파병설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다.

예를 들어, 미국 정부와 나토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사실을 10월 23일에야 공식 확인했다. 10월 9일 국방장관 김용현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지상군을 파병했다고 말한 후에도 이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아 온 미국 정부가 최초로 북한군 파병을 사실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 국방장관 오스틴은 러시아에 있는 북한 병력 규모와 파병 목적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고,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만 말했다. 여전히 전투병이 파병됐는지는 알 수 없다고 밝힌 것이다.

미국과 나토가 뒤늦게 파병 증거를 확인했다고 발표한 것은 러시아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 선언문 채택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러시아와 다른 브릭스 참가국들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다.

10월 24일에는 러시아 대통령 푸틴도 북한군 파병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전투병 파병을 확인해 준 것도 아니다.

푸틴은 러시아 하원이 '북·러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비준한 일을 두고서도 "우리가 무엇을 할지는 우리의 일"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주류 언론들은 이 말을 근거로 북한이



윤석열 정부는 이미 우크라이나에 간접으로 막대한 포탄을 보냈다

북·러 조약에 따라 전투병을 파병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러시아는 여전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전쟁'이 아닌 '특수 군사작전'이라 규정하고 있다.(북·러 조약에는 한쪽이 '전쟁 상태'에 처할 때 '군사 원조'를 한다고 돼 있다.)

한국 정부가 내놓고 있는 전투병 파병설도 모순된다. 애초에 한국 정부는 파병된 북한군이 특수작전군 예하 정예부대인 '폭풍군단'이라고 밝혔다. 이 부대는 후방에 침투해 교란작전을 펼치는 게 주임무라고 한다. 그러나 "러시아어도 못 하는 병사들이 후방에 침투해서 무슨 역할을 하겠느냐"는 반론이 나왔다. 그러자 최근에는 파병된 북한군이 징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10대에서 20대 초반의 청년들로 추정된다는 소식이 나왔다. 후방에 침투될 정예병이라고 했다가, '총알받이'로 쓰일 것 징집된 어린 병사들이라고 말이 바뀐 것이다.

이처럼 상충되는 소식들은 러시아에 북한군이 설사 파견됐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전투에 참가할 전투병인지 의문이 들게 한다.

오히려 상당수 러시아 전문가들은 현재까지 북한의 노동자 파견, 공병·군사기술단 파견 가능성이 높지, 대규모 전투병 참전은 확인할 수 없는 추측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다.

위험감

이처럼 한국과 우크라이나 정부가 확인되지도 않은 북한 전투병 파병설을 기정사실화하는 까닭은 뭘까?

지금 우크라이나는 병력과 전쟁 물자 부족으로 전선 곳곳에서 수세에 처해 있다. 그런 데다 미국이나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할지 불투명한 상태다. 미국 대선에서 '즉각적인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을 공언한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이 높아지면서 우크라이나는 훨씬 더 불리한 처지에서 러시아와 협상을 해야 할 처지가 됐다. 그래서 북한 전투병 파병설을 띄워서 서방 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약속 받으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와 일부 우파들은 북·러 사이에 군사·경제 교류가 확

대되는 것에 위기감을 갖고 있는 듯하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최신 군사 기술을 이전 받아, 핵무기를 더욱 발전시키고 재래식 무기들을 대거 개선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이다. 이를 막으려면 러시아를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 지배계급 전체가 이런 생각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조선일보>의 대표 칼럼니스트인 김대중은 "지금 러시아와 군사적으로 충돌하거나 척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안보가 아니다"며, 공격용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해 "나토 대(對) 러시아" 전쟁에서 꼭두각시가 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런 점들을 보면,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지지 세력을 결집시켜 정권의 위기를 넘기려고 북한 전투병 파병설을 띄우는 게 큰 듯하다.

실제, 군 장성 출신 국민의힘 의원 한기호가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북한군을 공격해 대북 심리전으로 활용하자"는 문자 메시지를 대통령실 안보실장 신원식에게 보낸 게 드러나기도 했다.

이미 윤석열 정부는 우회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막대한 포탄을 지원해, 전쟁을 연장하고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을 희생시키는 데 일조했다. 미국과 그 동맹들이 우크라이나를 앞세워 러시아와의 대리전을 치르면서, 평범한 우크라이나인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전투에 내몰려 죽거나 다쳤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북한 전투병 파병설을 기정사실화하고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 지원을 검토하며 제국주의간 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격화시킬 뿐 아니라 한반도에서도 전쟁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강동훈

▶ 2면에서 이어짐

"압박"하지만 다른 손으로는 사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제공해 주는데, 이스라엘이 왜 전쟁을 멈추겠는가.

이스라엘은 레바논 접경지대 북쪽에 있는 폭 5킬로미터의 통로를 완전히 파괴해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무지로 만들어 "중립 지대"를 조성하려 한다. 그 때문에 주택과 기반 시설이 체계적으로

파괴됐고, 반복되는 공습으로 주민들은 집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다.

시온주의자들은 또 다른 꿈을 꾸고 있다. 이스라엘의 이란 위협이 더욱 고조되기를 기대하면서 가자와 레바논 남부에 새 정착촌을 건설하는 꿈이다.

이스라엘 재무장관 베잘렐 스모트리치는 10월 27일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정착촌을 건설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발언을 했다. "[가자지구에 민간인과] 군대가 장기 주둔하지 않는다면 ... 안보가 있을 수 없고 이스라엘 국가와 국민도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된다."

미국 대선 결과가 이스라엘의 계획들에 다소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네타냐후 정부는 새로운 미국 정부와 대화하고 조율할 때까지 마구잡이로 폭격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지난 한 해 동안 가자·서안지구와 레바논을 공격했지만,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스라엘의 점령에 예속되는 삶을 거부하며 저항하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완전한 승리"는 달성될 수 없는 목표다. 팔레스타인인들과 그들에 대한 글로벌 연대 운동은 끝까지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신와르 살해 규탄 중동 시위들

하마스 지도자 야흐야 신와르가 이스라엘군에 의해 살해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아랍 나라들에서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

10월 18일 요르단의 수도 암만에서 수천 명이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요르단-이스라엘 평화조약(‘와디 아라바’ 조약)과 가스 거래 협정을 비롯해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단절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시위대는 또한 가자지구의 비극적 상황에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다른 아랍 정부들을 비판했다.

예멘의 수도 사나에서는 수십만 명이 시위를 벌였다.

모로코 전역에서도 시위가 벌어졌다. 카사블랑카·탕헤르·마라케시·페스·아가디르·라바트 등 수십 개 도시에서 수만 명이 시위에 참가했다. 시위대는 모로코가 이스라엘과의 외교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분노했다. 모로코 정부는 레바논과 팔레스타인의 저항 단체 지도자들을 표적으로 삼은 이스라엘의 공격에 침묵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가자 전쟁이 시작된 이후 모로코에서는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시위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그 때문에 이스라엘은 연락 사무소를 폐쇄하고 모로코 주재 공무원들을 대피시켰다. 모로코 정부는 10월 들어 팔레스타인인들을 지지하는 집회와 행진을 불허했다.

시리아와 서안지구에서도 시위가 벌어졌다.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에서는 시위대가 야흐야 신와르와 헤즈볼라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를 ‘테러리스트’라고 비난한 사우디아라비아 방송국(MBC)에 쳐들어갔다. 이라크 정부는 MBC의 방송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과 유럽에서도 이스라엘의 신와르 살해를 규탄하고 팔레스타인인들에 연대하는 시위들이 벌어졌다.

10월 21일 미국 뉴욕에서는 ‘평화를 지지하는 유대인의 목소리’ 집회가 증권거래소 앞에서 열렸다. 한 유대인 시위 참가자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미국의 도덕적 포장지로 이용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경찰은 시위 참가자 200여 명을 체포했다.

10월 2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는 7만여 명이 시위를 벌였다. 대학생, 대학 노동자, 보건 노동자, 교사, 유대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등이 참가했다. 시위대는 영어, 프랑스어, 플라망어, 아랍어로 가자지구·레바논 휴전을 촉구하는 한편, 자국 정부가 이스라엘에 대해 전면적인 무기 금수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영국 런던에서는 10월 19일 3만여 명이 시위를 벌였다.

한국에서도 서울(10월 19일), 울산·수원(10월 20일)에서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대는 신와르의 죽음을 애도하고 이스라엘의 만행을 규탄했다.

김인식



참혹한 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속에 일조하는 무기 지원 반대한다. 10월 23일 용산 국방부 앞 기자회견

윤석열의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 반대 행동

최근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 지원과 ‘군사 요원’ 파견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미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상당량의 무기를 우회적으로 지원해 왔다. 그런데 이제 더 많은 무기를 공개적이고 직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10월 23일 오전 11시, 용산 국방부 앞에서 이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하루 전날 호소된 기자회견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가했다.

첫 발언은 <노동자 연대> 이원웅 국제 담당 기자가 했다.

“북한군 러시아 파병설은 현재 우크라이나 정부와 언론의 일방적 주장일 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일방적 주장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직접 무기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

기 지원은 냉혹한 파워게임에 동참해서 득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국의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냉혹한

김성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장이 다음 발언을 이어갔다.

“지금 학교는 부자 감세, 세수 핑크 때문에 교육비 지출을 줄여야 하고, 선생님 수를 줄여야 하고, 고등학교 등록금을 이제 학부모들이 다시 내야 될 판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전쟁에 세금을 낭비하지 말고 미래를 만드는 교육에 재정을 더 투입해야 합니다.”

양선경 노동자연대학생그룹 활동가는 “윤석열의 손은 이미 피로 물들어 있다” 하고 폭로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제껏 살상 무

기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거짓말해 왔지만 뒤로는 우크라이나에 우회적으로 포탄을 보내왔습니다. 그 양은 유럽 전체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것보다 많았습니다.

“한반도와 전 세계를 더 위험한 곳으로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합니다.”

기자회견문은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이 낭독했다.

기자회견 주최측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2022년부터 러시아 철군과 서방의 확전 시도 반대, 한국 정부 개입 반대를 요구하며 도심 집회와 행진, 기자회견 등의 활동을 펼쳐 왔다.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전쟁 종단을 요구하고 한국 정부의 개입에 반대하는 행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정선영

..... 전문은 본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이스라엘과 협력하는 윤석열 정부와 대구시 규탄 행동

10월 23일(수) ‘대한민국 국제미래모빌리티엑스포(DIFA)’ 개막식이 열렸다.

중앙정부 부처들과 대구시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엑스포 행사다. 그런데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이 자국 기업들을 데리고 참여했다.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은 전시회 부스 하나를 떡하니 차지하고, ‘혁

신적인 이스라엘 기업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버젓이 홍보했다. 이스라엘 기업들은 컨퍼런스와 세미나에도 비중 있게 초대됐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떠드는 ‘혁신’ 기술은 미국이 자국의 중동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초 기지로서 이스라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폭 지원한 덕분이다.

그 ‘혁신적인’ 첨단 기술은 지금 가자지구에서 자행하는 끔찍한 인종 학살에 사용되고 있다.

이에 항의해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은 대구 엑스포 행사장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과 협력을 강화하는 윤석열 정부와 대구시를 규탄했다.

▶ 5면으로 이어짐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극우 대통령 밀레이에 맞선 아르헨티나 대중 저항

아르헨티나에서 극우 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에 맞선 대중 저항이 성장하고 있다. 필자는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레온 트로츠키를 주제로 열린 한 대회에 참여하고자 지난 주 아르헨티나를 방문했다. 특히 대학교와 병원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반(反)정부 항쟁에 참가할 완벽한 기회였다.

밀레이는 커다란 대중적 인기를 구가하며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56퍼센트 가까이 득표해 당선됐다. 밀레이는 치솟는 물가와, 당시 집권당이자 지난 20년 동안 아르헨티나 정치를 지배해 온 중도좌파 민족주의 세력인 페론주의자들의 몰염치한 부패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이용했다.

밀레이는 국가에 “전기톱”을 들이대겠다고 공약한 극단적인 경제적 자유주의자이다. 이 점에서 그는 페론주의자들과 뚜렷한 차이가 있다. 페론주의자들은 경제를 관리하기 위해 국가 개입을 이용했으며, 정부 지출과 국가 부채를 줄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압박에 저항했다.

밀레이는 그를 뒷받침하는 거대 정당도 없다. 그래서 그는 반대파를 흔들고 분열시키기 위한 공세에 매우 신속하게 나섰다. 취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폐소화(貨)의 가치를 54퍼센트 낮췄다. 그 때문에 물가가 치솟아, 올해 1월부터 9월 사이에 물가가 209퍼센트 올랐다. 밀레이는 금융 안정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기 위해 고정 환율 제도를 유지했다. 그러나 그는 공공 부문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있다.

밀레이의 주요 공격 대상 하나는 대학이다. 아르헨티나의 공립대학 체계는 등록금이 무상이고 대학이 국가 재정으로 운영된다. 밀레이는, 대학 재정



10월 2일, 밀레이의 대학 재정 삭감에 반대하며 시내를 가득 메운 시위대

확충과 교직원 임금 인상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때문에 대학 노동자들은 임금이 대폭 삭감되거나, 정리해고를 당하거나, 부서가 통째로 사라지는 일을 겪고 있다.

밀레이는 우파 성향의 전 대통령 마우리시오 마크리의 지지를 받아 거부권을 관철할 수 있었다. 마크리의 정당 덕분에 국회의원 3분의 1의 표를 모아, 밀레이의 거부권 행사를 의회가 재의결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었던 것이다.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처럼 밀레이도 의회 내 소수의 지지만으로 신자유주의적·인종차별적 정책들을 관철하려 하고 있다.

40퍼센트

그러나 밀레이의 공격은 대규모 대중 항의를 촉발했다. 여론조사에서 밀레이 지지율은 40퍼센트로 떨어졌다. 물가 급등과 소비재 보조금 삭감 때문에 생계비가 급격히 치솟았다. 공립대학 유지에 대한 지지도 강력한데, 공립대학이 노동계급 사람들에게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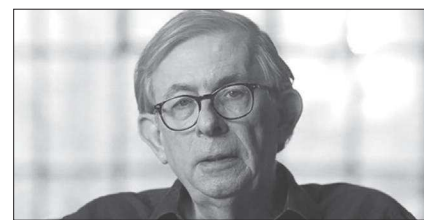
그 결과 파업, 시위, 학생 점거 물결

이 일었다. 4월에 정부의 대학 공격에 항의하는 100만 시위가 벌어졌고, 지난 달에도 대규모 시위가 있었다. 필자를 초청한 아르헨티나 극좌파 정당 노동자당(PO) 동지들은 자신들이 도심에서 선동을 할 때 밀레이에 대한 강렬한 분노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자당의 구호 “밀레이 퇴진!”이 점차 인기를 끌고 있다고도 한다.

지난주 화요일과 수요일 대학교 교직원들의 파업과 부에노스아이레스 소재 대형 병원 두 곳의 파업이 함께 있었다. 필자는 아르헨티나에서 여러 시위와 투쟁의 현장으로 유명한 ‘마요(5월) 광장’을 방문했다.

필자의 일행은 수브테 지하철역을 나와 카사 로사다(대통령궁) 앞을 지나쳤다. 그때 마침 밀레이와 내각 성원들이 대통령궁 발코니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궁 발코니도 명소인데, 페론주의의 창시자인 후안 페론과 에바 페론이 1940~1950년대에 지지 군중의 환호를 받던 곳이었다.

이번에 밀레이를 맞은 사람들의 태도는 사뭇 달랐다. 밀레이는 자기 생일을 축하하러 발코니에 나온 것이었다. 그러자 광장에서 대안 수업에 참가하던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대학생들과 대학교 교직원들이 밀레이를 규탄하러 몰려갔다. 시위대는 이런 구호를 외쳤다. “대학은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다! 마음에 안 들면 꺼져라!” 대통령궁 발코니가 삼시간에 비었다.

같은 날 오후 병원 노동자 수천 명이 의회에서 ‘5월 광장’으로 행진했다. 이 행진에는 전투적인 연금 수급자들도 대열을 이뤄 참가했다. 이들은 매주 시위를 벌이고 있고 시위 진압 경찰들의 폭력적인 공격도 받아 왔다. 나중에 시위 참가자 중 한 명은 내게 그녀가 경찰의 위협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다. “저는 ‘코르도바조’(1969년 5월 코르도바에서 벌어진 대규모 학생·노동자 반란) 때 열일곱 살이었고, 1976~1984년 군부 독재 치하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저치들이 두려울 까닭이 있겠습니까?”

이런 투지가 어디서나 팽배해 있다. 필자가 참석한 트로츠키 대회의 폐막 행사는 점거가 진행 중인 부에노스아이레스대학교 사회과학부 건물에서 열렸다. 그곳은 학생 투사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그 학생들, 노동자들, 실업자들의 ‘피케테로스’ 운동은 아르헨티나 항쟁의 역사의 새 장을 쓰고 있다.

번역 김준호

▶ 4면에서 이어짐

대구를 비롯해 인근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을 건설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럿 참가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혁신,’ ‘기업가 정신’ 운운하며 팔레스타인에서 벌이는 끔찍한 점령과 인종 학살을 가리려는 이스라엘에 분노했다.

대구에서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을 건설하고 있는 김미경 씨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저는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을 가르쳤던 교사였습니다. 지금 팔레스타

인에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수없이 죽어 나가는 어린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막힙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파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대구시는 인종 학살 국가 이스라엘을 규탄해도 모자랄 판에 이스라엘 기업 홍보를 위한 판을 깔아 주고 있습니다.

“인종 학살 국가 이스라엘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국제적 고립을 벗어나도록 돕고, 끔찍한 인종 학살을 지속하도록 지원하는 행위입니다.”

부산에서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을 조직하고 있는 정성희 씨가 이어서 발언했다.

“이스라엘의 인종 학살이 얼마나 끔찍했던지 유엔 총회조차 이스라엘의 점령과 관련해 무역 거래를 자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무기와 탄약 관련 장비 제공 중단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는 윤석열 정부와 대구시가 유엔 총회 결의조차 완전히 무시하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미움을 받는 윤석열 정부

가 이제 전 세계가 규탄하는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침략과 인종 학살을 비호하는 윤석열 정부의 이스라엘 지원을 규탄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란 뉴스 채널과 지역 언론 등이 취재했다.

참가자들은 이스라엘이 인종 학살을 중단하고, 한국을 포함한 서방 강대국 정부들이 인종 학살 공범 행위를 멈출 때까지 더욱 강력한 연대를 모아 내자고 결의했다.

안우춘

참여연대가 환영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이-팔 휴전 촉구 결의안 발의, 기대 걸 게 못 된다

김승주

10월 10일 이재정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41명이 국회에서 ‘가자지구에서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현재 상임위 심사 중)

이 결의안은 지난 9월 18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 12개월 내 종식’ 결의안을 지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에 근거해 현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이스라엘의 “1968년 이후 불법 점령”에 있다고 지적하고, 가자지구 민간인 살상과 레바논 등으로의 확전에 우려를 표한다.

10월 22일 참여연대는 “결의안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최근 참여연대는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과 공조해 대(對)이스라엘 무기 수출을 막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결의안 발의 당일인 10월 10일에는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의 실행위원인 임재성 변호사가 이스라엘로의 무기 수출을 중단시키기 위해 야당이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는 <한겨레> 칼럼을 기고했다.(이와 관련해 본지 웹사이트에서 다음의 글을 참조하시오: ‘대이스라엘 무기 수출, 참여연대의 훌륭한 폭로: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에 기대 걸기는 연목구어’)

11월 6일에는 이재정·한정애 등 민주당 의원 4인,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과 함께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어떻게 막을 것인가: 무기 수출을 중심으로”라는 토론회도 연다.

그러나 이번 결의안은 충분치 않거나 부적절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결의안 1항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에 적대 행위 중단을 동시에 요구한다. 이는 점령 국가인 이스라엘에 “근본적 책임”을 묻는 결의안 취지 설명(앞 부분)과 모순이고, 팔레스타인인들의 대의와 저항을 지지하는 것과 거리가 멀다.

무엇보다 이 결의안에는 학살 공범 미국 정부를 향해 책임을 묻는 내용이 한마디도 없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 규탄은 더욱 필요하고 중요한데, 결의안은 이를 피해 간다.

이는 민주당의 성격과 연관돼 있다.



이스라엘과 미국을 막을 궁극적인 힘이 과연 국회, 유엔, 여론에 있을까?

친자본주의·친제국주의 정당 민주당과 그 역대 정부들은 언제나 한미 동맹을 한국 경제와 안보의 기본으로 여겨 강화하려 애써 왔다. 그래서 대중동 정책 또한 대체로 미국 정부와 보조를 맞춰 왔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1년이 넘도록 이스라엘의 인종학살에 대해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아 왔다.

한편, 7월에는 박지원·김태년 등 민주당 내 영향력이 큰 5선 중진들이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촉구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그 내용은 이스라엘의 점령이 문제임을 지적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마스의 10월 7일 공습을 규탄하면서 시작된다.

참여연대가 지지·성원하는 41인 발

의 결의안은 당론도 못 되는 셈이다.

사실 이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 해도 이스라엘을 견제하는 효과도 없을 것이다. 지난 1년 동안 국제사법재판소, 유엔 총회, 여러 국가 의회들의 결의 채택이 있었지만 강제력이 없었고, 이스라엘과 미국은 무시했다.

그러한 ‘국제 기구’들의 결의안은 언제나 기층에서 강력하게 지속되는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에 대한 뒤늦은 반응이었다. 그 기구들은 기층 운동의 압력이 있기 전까지는 제국주의 강대국들이 주도하는 기존 세계 질서의 고분고분한 일부였다.

그러므로 참여연대 등이 집회 등 기층 운동을 국회·유엔 결의안 채택을 위한 보조 수단으로 여기는 것은 선후관계가 뒤집힌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진정한 변화는 ‘국제 사회’가 아닌 중동 민중의 저항과 국제 연대 운동에서 나온다

각종 국제 기구의 전쟁 범죄 중단 촉구가 가볍게 무시된 지난 1년은 ‘국제 사회’에 기대서는 이스라엘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의 가장 생생한 증거다.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자신들이 주도하는 국제 기구의 결정조차 무시하는 뻔뻔함을 보였다.

중국, 러시아, 남아공 등 브릭스 국가들이 화려한 조명 앞에서는 서방을 비판하고 팔레스타인인들을

염려하는 척하지만 뒤로는 이스라엘과 막대하게 거래한다는 점도 폭로됐다.

요르단과 이집트 같은 아랍 국가들이 “팔레스타인인 형제들”을 말하면서도 이스라엘과 군사 협력하는 위선도 까발려졌다.

이스라엘을 멈추게 할 힘은 팔레스타인을 포함하는 중동 지역에서 민중의 아래로부터 반란과 글로벌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에 있다.

또, 이 41인의 결의안이 이스라엘 점령 역사 전체가 아니라 1967년 전쟁 이후만 ‘불법’으로 문제 삼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이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평화 공존할 수 있다는 환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이와 관련해 본지 웹사이트에서 다음의 글을 참조하시오: ‘왜 두 국가 방안은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없는가’)

중동에서 시온주의와 제국주의를 몰아내려면 팔레스타인인과 아랍 민중 스스로의 저항이 일어나야 한다. 국제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은 그런 저항에 힘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주요 축이다.(아래 박스 기사를 참조하시오.)

그러나 참여연대는 이러한 아래로부터의 저항을 핵심 대안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여론, 국회, 유엔 등을 움직이는 것에 이스라엘을 막을 궁극적 힘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미국 제국주의에 반기를 들 생각이 전혀 없는 민주당 정치인들을 설득해서 국회를 움직이고, 나아가 미국 등 서방이 주도하는 ‘국제 사회’를 움직여서 이스라엘과 미국 정부를 멈추게 하겠다는 시도는 무망한 환상을 부추긴다.

게다가 민주당을 불편하게 할까 봐 필요한 주장이나 비판을 억제하게 될 수도 있다.(이와 관련해 본지 웹사이트에서 다음의 글을 참조하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왜 이스라엘의 만행을 규탄하지 않나’ 이는 아래로부터의 운동 건설에 나쁜 영향을 준다.

아랍 혁명이 전진하고 있던 2012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공격 8일 만에 미국의 강한 압박 아래 꼬리를 내려야 했던 것이 그런 경우였다. 당시 이미 이집트 독재자를 무너뜨린 혁명이 요르단까지 위협했기 때문이다.

국내 팔레스타인 운동의 현 단계에는 기층에서부터 차곡차곡 연대를 건설한다는 관점이 중요하다.

나의 이주노동자 사건 일지 6

외국인 유학생: 출입국 통제, 비싼 학비, 지옥 알바의 삼중고

필자 **김광일**은 이주노동자 전문 노무사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연대 회원이다. 일하면서 경험한 사례들을 <노동자 연대>에 매달 기고하고 있다.

올해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만 명이 넘었다.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 수는 계속 늘고 있고, 정부는 2027년까지 30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유학생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대학을 방문할 기회가 있을 때 유학생과 관련해 놀라는 일이 한둘이 아니다. 수많은 유학생들을 볼 수 있는 캠퍼스 풍경이 펼쳐지고, 대학 근처 식당이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이들이 많은 경우 유학생이다. 식당이나 주점 유학생 아르바이트는 이제 대학 근처만으로 국한되는 것도 아닌 것 같다.

외국인 유학생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유학생 확대는 출생률과 학령기 인구 감소로 대학 신입생 충원율(특히 '비수도권대학')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이다.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국 대학 당국의 이해관계도 있다. 대학 당국은 유학생들을 수익 창출의 도구로 여긴다.

"15년 넘게 이어진 등록금 동결 탓에 지방대는 외국인 유학생을 많이 받아 등록금 수입을 올려야 하는데 ... 유학생 관리까지 완벽히 해내기 쉽지 않다" <<동아일보> 2024년 2월 15일 자>는 것이 유학생 이탈에 대한 한 대학 당국자의 한탄이다.

"대학교육연구소 분석 결과, 193개국·공·사립 일반대·산업대·교육대 중 2023학년도 학부 등록금을 인상한 곳은 17곳(8.8퍼센트)에 불과했지만 대학원이나 정원 외 유학생의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69곳(35.8퍼센트)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인천대 1년 등록금은 400만 원(인문대)인데 2019년 인천대 한국어학당 1년 등록금은 480여만 원으로 조금 더 많이 받는 식으로 운영한다." <<한경BUSINESS> 2024년 10월 7일 자>

대학 당국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려면 교육부의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그 심사 기준 하나가 유학생들의 이탈률이다.(유학생의 처지에서 "이탈"은 미등록 신분이 되는 것이다.) 인증을 받지 못하면 대학 당국

의 수익 창출 통로가 막히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해 말 한신대학교 당국이 마치 출입국관리소 직원마냥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을 버스에 태워 공항에서 강제로 출국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던 것이다. (관련 기사 본지 487호, '한신대의 유학생 강제 출국 사건: 유학생을 돈벌이 수단 삼는 대학과 정부')

유학생 규모를 늘리려는 것은 정부의 노동력 수급 정책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한국 정부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 전반적인 교육 수준 향상으로 한국인이 기피하는 일자리에 이주노동자 유입을 확대해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려 한다. 정부가 올해 발표한 '유학생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에서도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로 인해 지역인재 양성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유학생 유입 확대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이주 가사노동자 도입 논란 때 정부는 유학생을 가사노동자로 활용하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외국인 유학생의 90퍼센트가 아시아 출신이고, 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한 유학생의 77.9퍼센트가 한국 기업 취업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한국무역협회, '생산인구 부족 극복을 위한 외국인 전문인력 활용 확대 방안 - 국내 외국인 유학생을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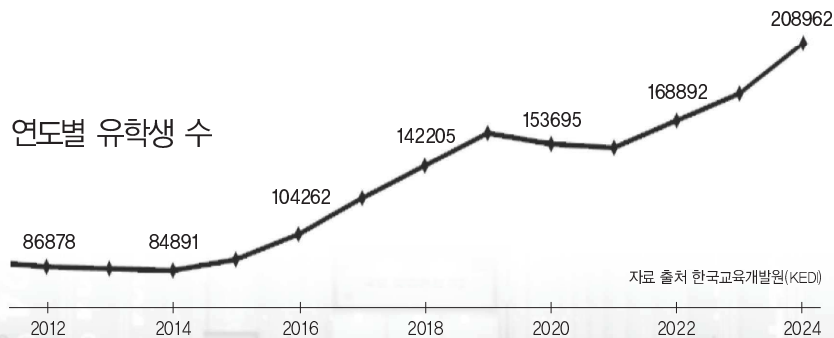
먹잇감

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이 이제 나에게서는 더는 생경한 풍경 속에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한 베트남인 유학생이 찾아왔고 그의 임금 체불 건을 해결하자 그 학생의 소개로 다른 학생들이 줄줄이 찾아왔다. 최근에는 소문을 듣고 온 네팔 출신 여학생들의 임금 체불 건도 많았다. 자신들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돼야 한다거나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자, 놀라면서도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이들의 특징은 모두 주점이나 음식점에서 일했다는 것이다. 주점의 특성상 이들의 노동시간은 매우 길었다. 새벽까지 주점을 정리하고 일주일에 하루, 주점이 휴무인 날만 쉴 수 있었다. 네팔 여학생들은 연중무휴 24시간 영업하는 음식점에서 12시간 주야 맞고 대로 일해야 했다.

'이렇게 긴 시간을 일하는데 학교 수업

연도별 유학생 수



한국으로 오는 유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이 겪는 어려움에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

은 어떻게 따라가지?' 하는 의문이 들 정도였다. 마침,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분과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대학에서 한국어 교육을 하면 그 시간에 유학생들은 대부분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졸거나 잠을 잔다고, 아르바이트 때문에 그렇다고 했다.

베트남 학생 중 한 명은 이른바 "이탈자"였다.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해서 아예 학교를 그만두고 지금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돈 버는 데 전념하고 있었다. 상담할 때 잠깐 그의 휴대폰 배경사진을 볼 수 있었는데, 부인과 아이의 사진이었다. 젊은 부부가 한국에서의 생활비와 육아 비용을 감당하는 것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것처럼 부양해야 할 가족이 없더라도 유학생들에게는 학업이 뒷전이고 아르바이트가 중심이 되는 상황이 빈번한 듯하다.

한국의 물가가 출신국과는 비교할 수 없이 높아 생활비 압박이 크고 학비도 부담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서는 감당하기 어렵다.

게다가 출신국 브로커를 통한 유학의 경우 그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한다. 상대적으로 문턱이 높은 고용허가제를 통한 입국보다는 유학생 신분을 이용해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렇다고 이들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한국 자본주의 국가의 국경 통제를

비난해야 할 것이다.

이런 처지인데도 외국인 유학생들의 취업 활동은 제약이 크다. 정부가 유학생들이 유학 비용을 한국에서 마련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주당 허용하는 근로시간이 짧고, 체계적으로 어학연수자와 학사, 석·박사 과정에 따라 근로시간 한도를 다르게 정하고 있다. 고약하게도 성적과 한국어 우수자에 대해서만 5시간의 추가 근로시간을 부여한다. 그런데 시간제 취업 신고 절차도 까다로워 대부분 신고하지 않고 일한다.

이러다 보니 이들은 사용자들의 먹잇감이 되기 쉽다. 내가 맡았던 외국인 유학생 임금 체불 사건 모두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이들에게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은 언감생심이었다. 미신고 취업이다 보니 4대보험 가입 따위는 공문구에 불과했다. 그래서 한 베트남 학생의 경우 체불이 인정됐지만 객관적인 근로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을 곧바로 받을 수 없어 법원 소송까지 거쳐야 했다.

그 규모가 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도 이주민의 일부다. 이제는 대학이든, 식당이든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는 존재가 됐다. 우선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관심을 갖고 먼저 손을 내밀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슬람 혐오는 무엇이고 왜 잘못됐나

최일봉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한국인 대부분은 이슬람도, 무슬림도 잘 모른다. 아마 한국에 사는 무슬림이 겨우 15만 명밖에 안 되기 때문일 것이다. 프랑스의 약 500만 명, 영국의 400만 명에 비할 바가 못 된다. 그나마 그 15만 명 중 3만 명은 주한 외국인 학생과 사업 관련자들이고, 12만 명은 이주 노동자들이다. 이 이주 노동자들은 주로 우즈베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출신이고 대부분 몇 년간 일터에서 죽도록 고생하다가 고국으로 귀국해야 하는 처지다.

이런 이유로 한국에서는 아직 서유럽만큼 이슬람 혐오가 가시적이지는 않은 듯하다. 그러나 몇 년 전 입국한 예멘 출신 난민들과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들이 겪어 온 이슬람 혐오를 생각하면 한국도 달라지고 있는 듯하다. 한국에서도 무슬림의 수는 계속 증가할 것이고, 무슬림의 존재감이 가시적이 되면 이 나라에서도 무슬림 혐오, 이슬람 혐오가 가시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어떤 좌파 인사 한 분은 강연(10월 19일)에서 한국 좌파 측에도 이슬람에 대한 편견이 꽤 있다고 인정했다.

이하에서 필자는 무슬림 혐오가 훨씬 노골적인 서구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서구에 사는 무슬림들은 너무도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살고 있다. 그들은 하찮은 존재 취급을 받고, 억울하게 신고당하고, 공개적으로 질문을 받으면 자신의 말이 진실이라고 맹세해야만 한다. 거리에서 극우 인종차별주의자가 아



2019년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시 총격 사건 당시 희생자 추모 집회

무 이유 없이 욕을 해 대면 지나가는 행인들이 흔히 아무 도움도 주지 않는다. 이런 천대와 억압이 하도 일상화돼서 무슬림들은 단 하루라도 평화가 자기 가족과 함께하기를 바라며 살아간다.

‘내부의 적’으로 몰린 무슬림

구직신청서에 ‘무함마드’ 같은 이름을 기입하면 조용히 걸려 내기를 당한다.

보수 정치인들은 무슬림들을 ‘내부의 적’처럼 묘사하고 소위 좌파 정치인들은 대부분 이를 모른 척한다. 심지어 보수 정치인들은 때로 사악한 조작까지 한다.

2016년 런던 시장 선거에서 보수당은 어느 병원의 기도 인도자 솔리만 가니를 아이시스 조직원으로 조작하고 노동당 후보 사디크 칸과 엮으려 했다. 그 후 순전한 거짓임이 밝혀졌는데도 정부는 거짓을 되풀이했다. 조작자들과 조작을 진실인 양 퍼뜨린 자들이 모두 나중에 사과했지만, 솔리만은 어느 날 갑자기 경찰 기동대가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와 자기를 보안 기관으로 강제 연행해 갈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했다.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를 연다는 이유로 심한 탄압을 받기도 한다. 핑계는 무슬림들이 유대인 혐오자라는 것이다.

그러나 압도 다수 무슬림들은 유대인 혐오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유대인 민족(국가)주의자들, 즉 시온주의자들을 반대할 뿐이다.

중국과 러시아에서도 무슬림계 소수 민족들은 민족자결권을 부정당한 채 탄압을 받는다. 튀르키스탄 동부 지역의 위구르인들이 그렇고, 미얀마의 무슬림들이 그렇고, 캅카스 북부 지역의 체첸인들이 그렇다.

요컨대 이슬람 혐오는 제국주의 국가들이 나라 안팎의 저항과 도전을 억압하고자 나라 안팎의 무슬림들을 희생양 삼고 공격하는 것이 그 본질이다.

무슬림은 잠재적 테러리스트인가?

무슬림에 대한 편견과 혐오는 1990년대부터 조금씩 증가하다가 특히 2001년 9/11 이후로 급증해 왔다. 그런 편견과 혐오를 부추기는 말이 바로 ‘이슬람 극단주의자’라는 말이다. 이때 ‘극단주의자’라는 말은 ‘테러리스트’라는 말 대신에 사용하는 말이다. 무슬림을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 뉴스를 보면, 특히 〈위싱턴 포스트〉 2018년 11월 25일치에 따르면, 오히려 극우가 테러라는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가, 특히 그들의 증오 범죄가 훨씬 많다는 것을 금세 알 수 있다.

그때 이후로도 극우 테러는 끊이지 않았다. 가장 유명한 사례 한 가지만 들자면, 2019년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시 총격 사건이었다. 무슬림을 증오한 극우 청년 하나가 모스크에서 기도하고 있던 무슬림들을 겨냥해 총을 난사해 무려 51명을 죽이고 89명에게 부상을 입힌 끔찍하기 이를 데 없는 사건이었다.

올해 9월 5일 미국 공영방송 PBS 뉴스가 최고위 경찰 간부 하나를 인용해서 한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에도 극우가 미국 내 최대 테러 위협을 제기했다.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좌파 주간 신문

노동자 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ws.or.kr/subs2

구독 문의: 02-777-2792, wspaper@ws.or.kr



ws.or.kr/online

온라인에서 만나 보세요

새 기사가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노동자 연대” 검색

스마트폰 앱으로 만나 보세요

“노동자 연대” 검색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매일 아침 7시 30분 이메일로 기사를 배송해 드립니다.
<노동자 연대>와 함께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발행인: 김인식 편집인: 김인식 사업자 명칭: (주)레프트미디어 제호: 노동자 연대
발행연월일(창간호): 2009년 3월 14일 인쇄인: (주)디엔코리아 현재호: 서울08179 (주간)
등록연월일: 2009년 1월 12일 주소: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16 4층
전화: 02-777-2792 제보: 02-777-2791 팩스: 02-6499-2791 email: wspaper@ws.or.kr

ISSN 2005-8217





10월 24일 필자가 발제한 '이슬람 혐오 - 오늘날 인종차별의 주요 형태' 토론회. 한국인, 중동인, 서구인 등이 많이 모여 열띤 토론했다

사진: 이매진



사진: 노동자연대 자료

이슬람 혐오는 기존의 인종적 편견에 이슬람교에 대한 편견까지 더한 인종차별이다

발명된 인종 개념

이슬람 혐오는 무슬림의 종교(이슬람)를 이유로 무슬림과 그들의 정치를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말한다. 무슬림 혐오자들은 “난 무슬림에게는 악감정이 없어. 내가 싫어하는 건 이슬람이야” 하고 강조한다.

이것은 발뺌이다. 그는 종교 비판으로 자신의 치부(인종차별이라는)를 가리는 것이다.

그리고 흔히 이렇게 덧붙인다. “종교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 인종은 바꿀 수 없어.”

이런 주장의 전제는 ‘인종’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의가 있고 그런 정의는 종교인을 분류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가정이다. 인종은 만들어지고 개발된 사회적 관념이다. 그리고 이 사회적 관념은 새로운 집단이 인종으로 만들어짐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는 유동적인 것이다. 그렇게 인종으로 만들어진 집단은 어떤 벗어날 수 없는 공통의 특징을 가진 것으로 여

겨진다.

반동적인 세력들은 편리하면 언제든지 인종과 종교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등치시킨다.

유대인 혐오도 그랬다. 유럽에서 유대인은 인종으로 만들어졌고, 이것은 결국 홀로코스트로까지 이어졌다.

서구에 사는 무슬림들의 대부분은 남아시아계이거나 아프리카계이거나 아랍계로, 오랫동안 인종차별의 주요 대상이 돼 온 사람들이다. 무슬림 혐오는 이 기존의 고약한 인종적 편견에다 이슬람교에 대한 편견을 덧붙인 인종차별이다. 특히, 모든 무슬림들을 ‘서구적인’ 것과 전혀 다른 문화와 라이프스타일을 가진 사람들로 취급하는 인종차별이다.

무슬림 혐오를 부추기는 자들은 유럽의 소위 ‘진보적’ 문화가 위협받고 있다며 혐오 선동을 해 왔다. 유럽의 ‘진보적’ 문화는 관용과 이성을 고취시키므로 소위 ‘광신적’이고 ‘비이성적’이고 ‘폭력적인’ 무슬림들의 문화와 정치보다 우월하다는 것이다.

비이성적 혐오, 이성적 혐오 선동, 표현의 자유

그러나 무슬림 혐오야말로 비이성적이다. 두 달 전 영국 전역에서 일어난 폭동은 무슬림이 칼부림 사건을 일으켰다는 혐오적인 뜬소문이 확산되면서 일어난 것이라는 사실만 봐도 알 수 있다. 7월 29일 사우스포트 어린이 댄스 교실에 어떤 청년이 갑자기 들어와 어린이 세 명을 살해하고 여러 명에게 부상을 입힌 이상동기 범죄가 일어났다. 용의자는 기독교인이었는데도 난민 신청자인 무슬림이라는 가짜뉴스가 퍼졌다. 나치인 토미 로빈슨이 이 가짜뉴스를 근거로 삼아 무슬림 혐오 선동을 하기 시작했고, 그의 지지자들이 폭동을 일으켜 무슬림 동네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잉글랜드 북부 로더럼 시에서는 200명의 난민이 머무르고 있는 여관 건물을 나치가 불태우려 했다. 영국의 이 극우 폭동으로 130명 이상이 부상을 입고, 1000명 이상이 체포됐다. 폭동이 일어나던 7일 동안 무슬림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다. 폭동 기간에 용의자가 무슬림도 아니고 난민 신청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알려졌지만, 진실은 극우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무슬림 혐오는 비이성적이지만 무슬림 혐오를 퍼뜨리는 자들 자신은 지극히 이성적인 자들이다. 대표 사례는 이성주의자를 자처하는 과학자 리처드 도킨스이다. 2013년 그는 “이슬람은 오늘날 세계 최대의 악의 세력”이라고 말했다. 이 일로 강연이 취소되자 그는 이렇게 발뺌했다. “나는 이슬람이 아닌 이슬람주의를 비판한 것이다. 즉, 이슬람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을 가리켰던 것이다.”(이슬람과 이슬람주의를 예리하게 분리시키는 것의 난점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다루기로 한다.)

도킨스는 또한 2015년 12월 무슬림의 미국 입국을 막겠다는 트럼프의 대선 공약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어났을 때

트럼프의 “표현의 자유”라며 그를 변호했다. 그리고 좌파를 비난했다. “좌파는 이슬람의 여성 혐오와 동성애자 혐오에는 눈을 감는다. 어리석게도 이슬람을 인종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먼저, “트럼프의 표현의 자유”라는 말은 웃기는 소리다. 표현의 자유는 “개인이 국가의 방해나 보복을 받지 않고 의견과 사상을 표현할 권리”를 뜻하는 용어다. 트럼프는 무슬림과 난민, 이민자, 성소수자 등을 모욕하고 비하할 때 미국 정부나 법원의 방해나 보복을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권력자인 그는 미국 헌법 수정 제1조에 의해 온전히 보호받거나 미국 대법원 판례도 혐오 발언을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것은 수정 제1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명시해 왔으니까 말이다.

그런데 표현의 자유는 방금 말했듯 바로 국가의 검열과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다. 그렇다면 좌파는 트럼프 같은 자들, 더 일반적으로 극우와 파시스트의 무슬림 혐오 발언을 검열하고 처벌하라고 국가에 요구해야 할까? 또, 페이스북이나 구글, X 같은 플랫폼 대기업들에 혐오 표현 검열을 요구해야 할까?

그런 요구는 부메랑이 돼 좌파와 노동운동, 무슬림들 자신에게로 돌아온다. 가장 잘 알려진 사례는 독일 국가가 이스라엘 비판을 유대인 혐오 표현으로 싸잡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이다. 또,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 참가자들이 종종 외치는 구호, “요르단강부터 지중해까지”도 여러 서구 나라에서는 불법이다.

그렇다면, 트럼프 같은 자, 더 일반적으로 극우의 인종차별 표현을 막으려면 기존 국가에 기대기보다는 대규모 항의 운동에 의해 입 닥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무슬림들은 동성애 혐오주의자인가?

이제 이슬람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와 편견을 다루고자 한다. 첫째, 동성애 문제다.

먼저, 현실의 신앙인을 경전의 몇몇 구절로 멋대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 그가 무슬림이든 그리스도인이든 유대인이든 말이다. 요즈음 그리스도교 측에서도 동성애를 비난하고 저주하는 그리스도인은 보수 복음주의자들에 국한돼 있다. 가톨릭 교인과 온건 개신교인은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식으로 동성애자에 대한 입장을 완화하고 있다.

무슬림들도 태도가 바뀌고 있다. 2017년 7월 26일에 발표된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 무슬림의 52퍼센트가 동성애를 사회가 용인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특히 1980년대나 90년대에 태어난 무슬림들은 60퍼센트가 그렇게 답변했다. 전체 응답자 평균 수치가 63퍼센트인 것에 비하면 무슬림 청년들은 전체 평균과 별로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무슬림 평균 수치인 52퍼센트는 2007년 27퍼센트에 비한다면 거의 갑절이 된 것이

다. 그런데 사회가 동성애를 용인해야 한다고 답변한 기독교 복음주의자들은 34퍼센트밖에 안 된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무슬림은 기독교인 다수보다 더 관용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실 무함마드 자신은 동성애 관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진 않았다. 비록 동시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동성애자를 탐탁치 않아 했지만 말이다. 동성애를 훨씬 부정적으로 취급한 것은 하디스이다. 하디스는 무함마드 가르침의 구전 전승인데, 몇 세기나 지나서 수집된 것이다.

필자가 무슬림은 성소수자 혐오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다. 일부는 분명히 그렇고, 일부는 분명히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내 요점은 무슬림들을 모종의 동질적인 단일체로 보아서 안 된다는 것이고, 또한 무슬림들에게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도 다른 소수자 집단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고, 그들도 관념이 변화한다는 것이다. 이슬람 교리는 근래에 바뀌지 않았지만 무슬림들의 태도는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머리 스카프와 베일은 여성 차별의 상징인가?

둘째, 머리 스카프나 베일 문제다. 진보파를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이 무슬림 여성의 머리 스카프나 베일을 두고 그들이 나이 많은 무슬림 남성들에게 몹시 예속돼 있다고 주장한다.

머리 스카프나 베일 문제는 그런 게 아니다. 머리 스카프나 베일을 착용한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더 현대적인 경우도 많이 있다. 그들 중 꽤 많은 여성들이 일부다처제에 반대하고, 가정 밖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는 가족 성원들에게 저항하고, 남녀 평등을 지지하고, 중매 결혼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머리 스카프도 이슬람 전통에 매이기보다 주변에서 유행하는 패션과 어울리게 착용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글로벌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 안에 무슬림 여성들의 참가가 두드러진다. 이것이야말로 순종적 무슬림 여성상을 상징적으로 반박하는 것이겠다.

자유주의자들과 다수 좌파는 서구 여성도 임금, 고용, 승진, 가정 폭력, 성폭력 등 많은 영역에서 차별과 천대를 받

으며 살고 있다는 점을 돌아봐야 한다. 게다가 낙태를 제한하고 긴축 재정으로 노동계급 등 서민층 여성을 곤궁과 고생으로 몰아넣는 많은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다. 예컨대 바이든, 트럼프, 윤석열, 이시바 시게루, 푸틴 같은 자들 말이다. 그래서 주로 그리스도인들이 문제처럼 보이지만, 인도 총리는 힌두교인, 시진핑은 자칭 '21세기 마르크스주의' 주창자, 영불독 3국의 지도자들은 무종교인이다. 그러므로 종교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서구/친서구 국가도 여성의 삶을 개선하는 것을 돕기보다는 더 힘들게 만드는 데 일조해 왔다.

그러므로 지난 십 년간 서구/친서구 나라들을 흔들어 온 여성 운동은 자유주의자들의 이중잣대를 폭로해야 마땅하다. 더구나 여성 지위 지수가 최하위 급인 한국의 여성 운동은 누구보다 더 강력히 자유주의자들의 위선을 폭로해야 한다. 무슬림에 대한 편견이 있는 많은 페미니스트들에 대해 침묵하지 말고 말이다.



한국에서도 이슬람 혐오에 맞서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사진은 이슬람교 서울중앙성원

이슬람은 너그럽지 못하고 편협한가?

셋째, 이슬람은 너그럽지 못하고 편협하다는 오해와 편견이다. 그런 주장은 많이들 믿지만 실제로는 진실이 아니다. 우선, 보수적 종교성은 무슬림에게만 특유한 게 아니다. 어느 종교인에게나 있는 것이다. 보수적 종교성은 해당 종교의 경전이나 교리가 아니라 그 종교 신자들이 사는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조건들의 압도적 영향 때문이다. 중동·북아프리카인들은 서구 제국주의에 의한 굴욕과 압제를 겪은 결과로 그들 나름의 고유한 종교성을 형성한 것이다.

가령 최초의 이슬람주의 운동인 무슬림형제단은 1882년 이집트에서 영국의 강점에 맞선 운동으로 시작했다. 그 운동의 핵심 지도자 하나는 이란계 무라얌 알 딘 알 아프가니였는데, 그는 중동 사람들이 공통의 종교를 가졌으므로 무슬림으로서 단결하면 식민 지배자들을 쫓아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1920년대에 세속적 민족주의자들의 정당 와프드(Wafd)가 제국주의자들과 배신적 타협을 해 영국의 꼭두각시인 정부를 세우자 무슬림형제단은 급성장했다.

20세기 후반부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이집트를 포함한 중동에서 재연됐다. 나세르주의가 후기에 부패를 드러내자 이슬람주의가 떠올랐다. 팔레스타인에서 하마스가 떠오른 것도 세속 민족주의자들인 파타와 PLO가 이스라엘과 미국을 위해 부역 행위를 했기 때문이다. 알제리의 이슬람구국전선 FIS의 성장도 알제리 NLF의 부패 문제로 설명된

다.

물론 이 과정은 결코 자동적이지 않았다. 만일 혁명적 좌파가 존재해서 혁명적 상황을 제대로 이용했다면 그들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 세력이 없었기에 저항과 반란은 전통에 의지하는 것으로, 특히 초기 전통을 불러내는 것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그런 대안 부재 속에서 제국주의의 압제로 사회가 고통을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초기 이슬람 전통을 저항과 반란의 대의명분과 이상으로 삼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처음부터 무슬림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개종을 강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흔히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 다른 집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신민으로 분류했다. 가톨릭 수녀 출신 저술가 카렌 암스트롱은 이렇게 말했다.

“오토만 제국은 상이한 신민 집단인 그리스도인, 유대인, 아랍인, 튀르키예인, 베르베르인 등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적 틀을 마련해 줬다. 그런 틀 안에서 이들 상이한 집단들은 자기 자신의 믿음을 유지하며 그 나름의 기여를 할 수 있었다.”

물론 중세 말과 근대의 급변하는 정세 때문에 이런 체계가 완전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중세 그리스도교, 특히 이교도 말살을 자행한 스페인 교회보다 훨씬 관용적이지 않은가. 장 칼뱅의 개혁 교회가 지배한 제네바 기독교보다도 그렇고 말이다.

이슬람주의 대 세속주의?

넷째, 이슬람주의(정치적 이슬람) 문제다. 자유주의자들과 많은 사회주의자들은 도킨스처럼 이렇게 말하곤 한다. “이슬람은 좋으나 이슬람주의는 나쁘다. 즉, 이슬람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나쁜 것이다.” 이슬람주의가 특히 신정 국가를 강령으로 삼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방어하기를 꺼린다. 심지어 하마스를 팔레스타인 해방 운동의 ‘우파’로, 파타를 포함한 세속주의자들을 ‘좌파’로 분류한다. 파타는 해방 운동 세력의 일부가 아니라 해방 운동을 파괴하려는 부역자들인데도 말이다.

20세기 초와 달리 오늘날 자유주의자들과 많은 사회주의자들은 세속주의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다. 세속주의는 첫째, 개인들에게 온전한 종교적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다. 둘째, 국가와 교회(종교 단체)의 중립적 분리이다.

먼저, 종교적 자유에 대해 살펴보자. 오늘날의 (특히 프랑스) 세속주의자들은 개인의 종교적 자유를 개인이 공공 기관과 국영 시설에서 종교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완전히 바꿔 놓아 버렸다. 그래서 머리 스카프나 베일 착용을 금지하는 ‘공화주의적’ 억압을 지지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극우에게 이로운 짓을 하고 있다.

둘째, 교회와 국가의 중립적 분리는 국가가 종교 일반이나 특정 종교 또는 특정 종파를 통제하거나 특혜를 베풀지 않는 것이며 종교나 종파도 국가에 기대지 않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면, 세속주의자들은 하마스와 헤즈볼라 비판을 하기 전에 먼저 서구의 국가와 교회가 흔히 오늘날에조차 통합돼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남부 유럽 나라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영국과 독일도 각각 성공회와 루터회라는 국교회가 존재한다. 필자가 유럽 사회주의자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 문제를 중요한 이슈로 삼아 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다. 세속주의자들이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다.

이란 국가의 문제는 주로 신정 국가 문제가 아니라, 억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국가 기구라는 점이 진정한 문제다. 이란 국가 기구가 북한이나 러시

아, 중국 같은 국가 기구들보다 특별히 더 나쁜 것처럼 취급하는 것도 이중잣대다.

그런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구분 하나를 해야 한다. 러시아, 북한, 중국은 억압적이고 착취적인 국가들이다. 더구나 러시아와 중국은 제국주의 국가들이다. 하지만 그런 국가들을 지지하는 서구/친서구 나라의 활동가들은 그 국가들의 관리자들과 전혀 다른 처지에 있다. 서구/친서구 나라의 스탈린주의자들은 억압을 당하는 처지이다. 게다가 차별받는 사회운동의 일부이다. 그래서 우리 노동자연대 단체는 친북한 활동가들을 동지라고 부르며 그들에 대한 남한 국가의 탄압에 단호하게 반대한다.

이와 비슷하게,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이란 국가의 관리자들인 고위 물라들과 구별해야 한다. 하마스와 헤즈볼라는 지배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피지배자들과 그것도 혹심한 박해나 억압을 받는 피지배자들이다. 반면 이란의 고위 물라들은 이란 자본가들의 친구들이며 그들 자신이 석유 등 국영 기업들을 지배하는 국가자본주의적 지배계급이다.

하마스와 헤즈볼라

그러나 하마스와 헤즈볼라가 정당이고 그것도 대중 정당인 한 그들은 이슬람 교리보다는 핵심 지지자들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들 핵심 지지자들은 훨씬 광범한 지지자들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 훨씬 광범한 지지자들 안에는 여성도 있고, 성소수자도 있다. 게다가 주변의 다른 종교 집단 및 종족과 상호작용을 하며 살아가므로 이들의 영향도 받는다.

하마스와 헤즈볼라의 변화에서 교리보다는 지지 대중이 훨씬 중요한 요인이라는 이런 대중 정당의 역학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지는 않고 교리의 프리즘으로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보는 것은 유물론이 아니라 관념론의 관점이다. 마르크스는 “사상이 무수히 많은 대중에게 받아들여질 때, 그때 그것은 물질적 힘”이라고 지적했다.

그래서 이슬람주의라는 프리즘을 통해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보기보다는 그들을 민족 해방 운동의 지도부로 봐야 한다.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 속 무슬림 여성들의 활약은 그들에 대한 편견을 명백히 반박한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1524~25년 독일 농민 전쟁을 돌아보면서, 토마스 뮌처가 이끄는 그 운동이 신정 국가(천년왕국)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 전혀 개의치 않았다. 가난하고 천대받는 농민들이 귀족 지주들에 맞서 싸운다는 점이 그들에게 정말로 중요했다. 그래서 엥겔스는 뮌처를 “혁명적 공산주의자”라고 불렀다. 신정 국가 지향자라고 부르기보다는 말이다.

하마스와 헤즈볼라가 정치 정당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그들의 정치에 초점을 맞춰야지, 그들의 신앙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한다. 신앙 내용은 신학자나 종교철학자에게 맡겨 두라. 한국에서도 1970년대와 80년대에 민중신학이라는 정치신학 운동이 활발했다. 당시에 비종교적 활동가들은 민중신학 계열 활동가들과 신앙 내용이나 교리를 놓고 논쟁하지 않았다. 정치 강령과 정치 전략·전술을 놓고 토론했다.

우리는 하마스와 헤즈볼라의 이상이 신정 국가이든 뭐든 간에 그들의 이상보다는 현재 그들의 처지와 저항에 공감한다. 그들도 억압과 착취가 없는 세계, ‘움마’ 같은 공동체를 꿈꾸고 있음을 우리는 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다. 중요한 것은 함께 싸우는 것이다.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은 미국 제국주의와 이스라엘 시온주의에 맞서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방어해야 한다. 제국주의와 자본주의를 물리치고 진정으로 민주적이고 평등한 사회를 이룩하는 데에 성공한다면 그들의 강령은 현실에 의해 일부 수정을 강요당하게 될 것이다.

맺으며

무슬림 혐오라는 신종 인종차별에 타협하지 않고 단호하게 싸워야 한다. 무슬림에 대한 편견과 오해에 한 치도 타협하지 말고 무슬림들을 옹호하고 환대해야 한다.

혐오에 기회주의적으로 타협한 불행한 사례 하나를 들겠다. 프랑스의 반자본주의 신당 NPA 사례다. NPA가 이슬람 혐오 정당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이슬람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많이 받아들인다. 예를 들면, 무슬림 여성이 머리 스카프나 베일을 착용하는 것은 성차별을 반대하는 여성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들을 모욕하는 것으로 여긴다.

그런 오해와 편견에 타협하던 중 NPA는 2010년 지방선거에 무슬림 여성 후보를 내보냈다. 아비뇽 지역의 후보로 나온 일함 무사이드는 머리 스카프를 착용했다가 우파는 물론이고 많은 페미니스트들로부터, 또 사회당과 공산당, 심지어 장뤽 멜랑송 등 좌파로부터도 집중 포화를 받았다. 선거 기간과 그 후에도 NPA 당원의 절반이 머리 스카프를 반대하고 나머지 절반이 방어하는 상황이 여러 달 이어졌다. 그러다가 마침내 무사이드와 여러 당원들이 연말에 탈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러나 시온주의와 서방 제국주의에 일관되게 반대하는 사람은 이슬람에 대한 편견과 혐오에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만 팔레스타인인들과 레바논인들의 저항을 일관되게 지지하고, 그들에게 연대하는 운동도 일관되게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난민과 ‘불법’ 이주노동자를 방어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 일이다.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 내의 주요 논쟁점들

〈노동자 연대〉 편집팀

지난해 10월 7일 이래 노동자연대는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을 되도록 폭넓게 건설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 운동은 유례없는 규모로 일어난 국제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의 일부이다. 그 국제 운동은 국제 정치에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에서는 바이든이 재선 도전에서 낙마했고, 영국에서는 보수당 정권이 몰락했다.

유엔의 표결은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러나 9월 18일 유엔 총회에서 압도 다수의 국가가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결정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시사적이다. 이는 세계 곳곳의 거리에서 나타난 정서를 반영하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지난해 10월 7일을 계기로 대중적인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을 건설하려는 시도가 (노동자연대와 팔레스타인인들, 이집트인들에 의해) 처음 시작됐다. 그리고 이 운동은 한국에서 팔레스타인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데서 핵심적 구실을 했다. 국회의원이나 매스미디어는 추수했을 뿐이다.

노동자연대는 이 운동 속에서 가장 필요한 주장을 제시해 왔다. 그리고 그런 주장들 덕분에 운동의 저변 확대에 중요한 구실을 할 수 있었다.

이하에서는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이 더 효과적이 되기 위해 필요한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의 주요 쟁점들을 다루고자 한다. 축약되지 않은 전문을 본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전문 보기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이 한국 내 팔레스타인 우호 여론 형성에서 핵심 구실을 했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관계

미국을 비롯한 서방 정부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인 억압을 계속 지지해 왔다. 물론 거기에는 긴장도 있다. 예컨대 바이든과 네타냐후는 가자지구와 레바논에서의 휴전을 놓고 불협화음을 빚었다. 그러나 미국은 무기 판매를 일절 중단하겠다고 이스라엘을 위협한 적이 없다.

이스라엘이 지난 9월 서방의 휴전 촉구를 물리쳤을 때 미국은 오히려 87억 달러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을 이스라엘에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네타냐후는 휴전 촉구를 거절하면서 헤즈볼라 지도자 나스랄라의 살해를 명령했고, 바이든은 나스랄라의 죽음에 찬사를 보냈다. 미국은 네타냐후의 행동에 짜증을 내면서도 시종일관 그 행동을 돕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팔레스타인 운동 내에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서방의 관계의 성격은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다. 본지는 이스라엘을 서방의 중동 경비견으로 본다. 이스라엘은 나뭇의 이해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서방의 노선을 한 치도 벗어나지 않고 따르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중동의 경제적 강국으로 성장하고 첨단 기술과 군사 부문의 역량을 발전시킨 덕에 때때로 더 과감하게 서방의 의향을 거스르기도 한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제국주의의 지원으로 건국됐고 지금도 중동이라

는 세계의 핵심 지역에서 제국주의의 도구 구실을 한다. 제국주의의 적들을 제거하는 데서 이스라엘이 보인 탁월한 능력은 자신의 주인인 제국주의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리고 현재 그 주인, 즉 미국 제국주의는 곳곳에서 도전에 부딪히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패색이 짙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다. 미국에게 가장 중요한 대결인 중국과의 대결은 대만을 둘러싼 끊임없는 긴장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 전선에 대처해야 하는 처지에서 미국은 이스라엘이라는 유용한 공격 부대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바이든은 지난해 이렇게 말했다. “이스라엘이 없었다면 미국은 그런 국가를 하나 만들어 냈을 것이라는 게 나의 오랜 지론이다.”

그러나 정반대의 인식, 이스라엘이 서방을 조종하고 있다는 인식도 상식처럼 널리 퍼져 있다.

이런 인식은 “유대인 로비”의 영향력을 핵심 문제로 보다가 유대인 혐오적 주장으로 미끄러지기 쉽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제국주의의 지원이 갖는 성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헤즈볼라 지도자 나스랄라가 잘 지적했듯이 “유대인이 미국을 지배한다는 주장은 틀렸다. 결정을 내리는 것은 미국 자신이다.”

이스라엘 국가의 성격

이스라엘의 본질이 식민 정착자 국가라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입증됐다. 이것은 의식의 중대한 전진이다. 이스라엘과 같은 유형의 식민 정착자 국가의 건국은 토착 주민에게서 강탈한 땅에 제국주의 본국의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이식하는 과정을 수반한다.

그렇게 세워진 국가는 확장과 토착 주민의 절멸을 추구하는 본성이 있다.

정착자 식민 프로젝트는 또한 파편이 된 노동계급을 형성시킨다. 시온주의의 경우, 그 프로젝트는 팔레스타인인들에게서 강탈한 노획물로 득을 보는 이스라엘 노동계급을 형성시켰다.

‘두 국가’ 방안

엄청나게 큰 역사적 사건들은 사람들의 오랜 확신을 뒤흔들기도 한다.

‘두 국가’ 방안의 가능성에 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과정을 겪었다. 1993년 오슬로 협정으로 드러난 ‘두 국가 방안’의 실체는 어느 때보다 분명하다.

역사가이자 저술가인 에드워드 사이드는 오슬로 협정을 “팔레스타인의 항복 문서”라고 일컬었다.

팔레스타인 당국(소위 “자치정부”)은 이스라엘의 억압에 부역하는 세력이다.

올해 7월 이스라엘 의회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내에는 이스라엘 국가를 거부하는 개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노동계급이 계급으로서 팔레스타인 해방 투쟁에 가세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이는 개전 이래 일어난 맹렬한 반네타냐후 시위에서도 입증됐다. 그 시위와 파업은 이스라엘 정치의 시온주의적 성격에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야당들은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그 저항을 진압하는 데서 네타냐후가 무능하다면서 반발하는 것이다.

레바논 침공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내에서 어떠한 항의도 일어나지 않았다.

의 합의를 통한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조차 거부하는 결의안을 68 대 9로 통과시켰다.

‘두 국가’ 방안은 사기이고 진정한 쟁점을 직시하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진정한 쟁점은 어떻게 “요르단강에서 지중해까지” 비종교적 단일 민주 국가를 세우고, 이스라엘에 의해 쫓겨난 팔레스타인인 모두의 귀환권을 실현하느냐다.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에 단일 국가가 세워져야 한다는 견해를 받아들이고 있다.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전략

본지는 지난 1년 동안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투쟁의 세 전략적 요소를 강조했다.

1. 팔레스타인인 자신들의 저항
2. 중동 노동자·빈민 대중의 반란
3. 서방과 친서방 나라들에서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고 이스라엘 지원에 맞서는 운동

이런 강조점은 어떻게 입증됐는가?

첫째,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스라엘의 공격에 맞서 놀라운 용기를 보여 주고 있다. 네타냐후가 1년 동안 가자지구에 무자비한 공격을 퍼붓고도 저항을 굴복시키지 못할 것이라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스라엘 군이 '진압'을 완료하고 떠난 곳마다 저항이 되살아났다.

그러나 이스라엘군이 몰고 온 야만과 미국이 제공하는 막대한 무기는, 무장 저항만으로는 시온주의를 분쇄하거나 진정한 해방을 쟁취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이스라엘 내 팔레스타인인들 사이에서는 2021년 총파업과 같은 수준의 조직적인 저항이 벌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는 시온주의와 제국주의에 맞선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을 100퍼센트 지지한다. 그런 지지를 기초로 혁명가들은 자신의 독자적인 혁명적 정치와 하마스·헤즈볼라 정치 사이의 차이를 제기할 수 있다.

둘째, 지난 1년 동안 아랍 지배자들은 자기 계급의 이익에 따라 미국 제국주의에 협조해 왔다. 그들은 뒷구멍으로 이스라엘과의 교역을 지속하고, 유가 인상을 거부하고, 이스라엘을 공격으로부터 지켜 주기까지 했다.

중동의 수많은 사람들은 자국 지배자들이 말로는 팔레스타인인들을 지지한다면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똑똑히 보고 있다. 가자지구와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댄 이집트에는 1억 1000만 인구가 살고 있다. 이집트 노동자·빈민 대중이 반란을 일으켜 팔레스타인 지지를 결집시키고 자국 지배자들을 타도한다면, 팔레스타인 해방의 전망을 획기적으로 열 것이다.

권력을 장악한 이집트 노동자·빈민 대중은 가자지구를 봉쇄하고 있는 장벽을 허물 것이다. 또한 요르단·레바논·시리아 등지의 반란을 고무할 것이다.

그런 반란은 대중의 자력 해방 과정



팔레스타인인의 대의는 아랍 대중 저항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 하마스 지도자 신와르를 추모하며 행진하는 요르단인들

의 일부로서, 제국주의가 이스라엘이라는 경비견을 더는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그런 혁명을 성사시키려면 연속혁명 전략의 관점에 따라 경제 투쟁과 정치 투쟁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식료품 가격 인상에 항의하는 투쟁과, 민주적 권리를 요구하는 투쟁, 팔레스타인인 인종 학살에 맞선 투쟁이 결합돼야 함을 뜻한다.

지난 투쟁의 교훈

아랍 정권들에 맞선 혁명이 필요하다는 관점은 그 정권들뿐 아니라 팔레스타인 지도부에도 일부 충돌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팔레스타인인들의 지난 투쟁에서 잘못된 교훈을 이끌어 냈기 때문이다. 가장 첨예한 사례는 1960년대 요르단에서의 경험이다.

이스라엘의 건국과 1967년 전쟁 등으로 1960년대 말에 이르러 요르단에는 약 200만 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살고 있었다. 이 팔레스타인들 사이에서 저항 조직들이 발전했고 그 중심에는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가 있었다.

PLO는 1968년 3월 요르단의 카라메에서 이스라엘의 공격을 격퇴한 것을 계기로 요르단 내에서 상당한 지지를 얻었다. 후세인은 PLO가 자신의 통치력을 위협할까 봐 두려워했다.

1970년 후세인은 PLO를 상대로 내전을 일으켰다. 후세인의 군대는 팔레스타인인을 1만 명 넘게 살해했다.("검은 9월")

계급을 초월한 민족 운동을 늘 추구해 온 PLO 지도자들은 아랍 지배자들에게 도전하는 것을 삼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노선에 따라 PLO 지도자들은 아랍 대중의 자국 지배자들에 맞선 저항을 외면했다.

그러나 1960년대 요르단에서의 경험이 주는 올바른 교훈은 시온주의와 제국주의 체제에 맞선 투쟁을, 그 체제의 현지 지배자들에 맞서는 투쟁과 결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하마스는 이란 정권과 우호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런데 이란 정권은 2년 전 여성의 권리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분쇄한 바 있다. 하마스가 기대고 있는 또 다른 세력인 튀르키예 정권은 쿠르드 민족 해방 투쟁을 억압하고 자신의 정적을 탄압하는 정권이다.

하마스가 그런 동맹자들을 필요로 하는 것은 계급 투쟁이 아니라 무장 저항을 해방의 핵심 수단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무장 저항을 중심에 놓는 운동에서는 무기와 은신처, 외교적 지원이 중요해진다.

물론, 지난 한 해 동안 아랍 대중의 반란은 국가 탄압과, 중동을 지배하는 민족주의 정치에 의해 억제됐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는 아래로부터의 반란이 강력하게 분출할 것이다. 최근 이집트의 혁명적사회주의자단체(RS)가 지적했듯이 "시온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핵심은 제국주의·시온주의와 결탁하고 잔혹한 독재를 퍼고 자국민을 궁핍하게 만드는 정권들을 타도하는 데 있다."

이슬람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현재 중동에서 반제국주의 정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이슬람주의다.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을 이끄는 하마스와 레바논인들의 저항을 이끄는 헤즈볼라도 모두 이슬람주의 조직이다.

국제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에서도 무슬림들은 핵심적 구실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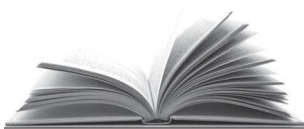
또한 무슬림들은 오늘날 인종차별의 주된 타깃이 되고 있다. 서구에서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에 대한 공격은 극우의 무슬림 혐오 부추기기와 하나로 통일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무슬림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 널리 퍼져 있고, 한국의 많은 진보·좌파도 그러한 편견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는 특히, 종교 사상을 문제 삼으면서 하마스나 헤즈볼라와 차별화하는 태도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슬람주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들의 종교 사상이 아니라 그 운동이 출현한 역사적 조건에서 출발해야 한다.

우리는 하마스와 헤즈볼라가 민족 해방 운동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이 이슬람 정치를 추구한다고 해서, 예컨대 이란 지배자들과 똑같은 성격을 갖는다고 착각해서도 안 된다.



서평 | 《반일 종족주의》

일본인 청년 사회주의자가 《반일 종족주의》를 비판한다

하세가와 사오리 한국에 거주 중인 일본인 청년.
한-일 통번역사

최근 뉴라이트 진영의 정치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친일 과거사 청산을 부정하고 1948년 건국절을 주장한 김형석 대한민국역사미래 이사장이 독립기념관 관장으로 임명됐다.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에 이어 독립기념관까지 뉴라이트 인사가 수장에 취임하게 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강조하며 뉴라이트 역사관을 반영한 발언을 해 큰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뉴라이트 진영이 주목을 받게 된 계기 중 하나는 이영훈 교수 등 연구자 6명이 집필한 《반일 종족주의》 출판이었다. 2019년 7월에 출판된 이 책은 교보문고 2주 연속 종합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하며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일본어판 역시 출판 전부터 아마존 일본 서적 종합 1위를 기록하는 등 큰 주목을 받았다. 출판 후 아마존 리뷰란에는 “한국에 의해 왜곡된 근대 한일사를 바로잡는 내용. 저자의 용기에 감사한다.” “한국인 저자에게 경의를 표한다” 등의 우익의 찬사가 이어졌다. 일본 우익들은 자신들의 역사관을 한국인 연구자가 대변해 주니 이보다 반가운 일이 없었을 것이다.

나는 《반일 종족주의》가 뉴라이트 진영의 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당초 읽을 생각이 없었다. 그러나 일본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듯한 찬사가 넘쳐나는 리뷰를 보자 같은 일본인



《반일 종족주의》의 공동 저자들인 김낙년(좌)과 이영훈(우)

으로서 강한 분노를 느꼈다. 거짓된 주장이 마치 역사적 진실인 양 확산되며 한국과 일본의 우익들에게 이용되는 현실을 지나칠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반일 종족주의》를 읽고, 일본인 사회주의자로서 이 책의 문제점에 대해 비판하기로 결심했다. 《반일 종족주의》출판 후 제기된 비판에 대한 반론으로 2020년 5월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이 출판됐다. 그러나 기존의 주장을 수정하려는 태도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반일 종족주의》의 내용에만 초점을 맞춰 기술하기로 했다.)

이영훈의 《반일 종족주의》와 그 논조

이영훈 등은 《반일 종족주의》에서 일본 정부와 역사 왜곡에 대한 비판과 책임을 묻는 행위를 ‘반일’로 규정하고, 그러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민족주의자가 아닌 미개한 ‘종족주의자’라고 폄하한다.

그에 따르면, 종족주의란 일종의 사머니즘적 원시 종교로서 자기 종족이 아닌 이웃을 악(惡)으로 감각하고 불변의 적대 감정을 품는 미개함이 특징이다. 또한 이런 종족 사회에서는 거짓이 토착문화로서 결속을 강화하는 역할을 해, 거짓말이 선(善)으로 장려되고 집단 문화로서 확산된다고 주장했다.

이영훈은 한국인의 사상이 이런 원시적 사머니즘에 사로잡혀 있어서 이웃 국가인 일본에 대해 무지하면서도 세세(歲歲)의 원수로서 적대감을 키우며 역사 왜곡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일본의 제국주의 범죄에 대한 비판이 종족주의라는 황당한 논리다.

《반일 종족주의》의 대표 저자인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와 공동 저자인 김낙년 동국대 교수가 소속된 낙성대경제연구소는, 198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중반에 일본 도요타재단의 지원을 받아 식민지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니나 다를까, 이들은 일본 우익이 선호할 만한 주장을 철저히 펼

치고 있다.

너무 유치한 견해라 이러한 주장들을 자세히 검토할 생각은 없으나, 그들이 《반일 종족주의》를 통해 식민지 근대화론을 전면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들은 일본이 식민지 시대에 조선 경제를 성장시키고, 해방 후 한국의 고도성장을 위한 기초를 마련했다고 주장하며, 식민지 시대의 수탈과 억압의 사실을 부정한다. 또한 박정희나 이승만과 같은 독재자들을 공산주의로부터 한국을 지키고 국가 발전을 이끈 영웅으로 미화하고 있다.

또한 《반일 종족주의》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일제의 식량과 토지 수탈 문제, 조선인 노동자 강제 동원 문제, 쇠말뚝 신화, 한일 청구권 협정, 독도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다양하지만, 그들은 그 책임을 일본 정부가 아닌 전 근대적인 조선 사회나 “거짓말하는” 한국 국민에게 돌리고 있다.

이영훈은 “국익을 위해 잘못된 주장을 옹호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하며, 자신의 비판이 “엄격한 학문적 비판”에 기반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 주장이 과장되거나 거짓인 경우가 많아 학자들로부터도 지탄을 받고 있다.

지면 관계상 왜곡투성이인 이 책의 모든 주제를 반박할 수는 없으므로, 나는 《반일 종족주의》의 핵심 주장인 식민지 근대화론과 조선인 강제 동원 문제, 그리고 위안부 문제에 초점을 맞춰 논하고자 한다. [계속]

이후 기사는 본지 웹사이트에
서 볼 수 있다.



영화평 | 〈전,란〉(2024)

우파가 싫어할 영화가 사람들의 공감을 사다

〈전,란〉은 2024년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이다.

양반 종려(박정민 분)와 노비 천영(강동원 분)이 전란 속에서 각각 왕의 최측근 무관과 의병이 되어 대립하는 이야기다.

정여립의 난(1589년)부터 시작해 임진년(1592년)에 시작된 전쟁이 끝나고 난 직후까지 전(戰), 쟁(爭), 반(反), 란(亂)

에 이르는 네 장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대단한 구성만큼 완성도가 높진 않다.

그럼에도 전쟁을 탈정치화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이 영화는 계급적 갈등을 다루고 권력자에 대한 의심을 유지한다.

흔히 영화는 영화가 그려 낸 시대보다 영화가 제작된 시대를 반영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에서도 과거와 현재의 유사성을 발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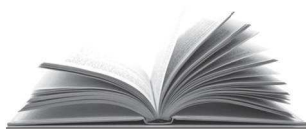
특히 차승원 배우가 연기한 선조가 등장하는 모든 장면이 하이라이트다.

과장이거나 우화적인 장면도 있지만, 선조가 빛속에 야반도주를 하고 임진강을 건너자마자 배와 나무를 전부 끊고 주변 인가를 파괴하라 명령하는 것은 《선조실록》을 고증 수준으로 재연한 장면과 대사다. 실제로 백성들은 물론이고 신하들도 미처 강을 건너지 못했다.

《선조실록》에 따르면, 분노한 평양 백성들이 중전 일행에게 몽둥이질을 가했다. 선조는 그들의 목을 베고 머리를 높이 매달게 하고 평양을 떠났다.

영화 내내 왕은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 모두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린다. “다스리는 자들의 고달픈 숙명”이라고도 말한다.

▶ 15면으로 이어짐



서평 | 《왜 미국은 이스라엘 편에 서는가》

유대인 로비설은 진정한 표적을 흐릴 뿐

최근 한국에 번역 출간된 《왜 미국은 이스라엘 편에 서는가》(존 J. 미어샤이머, 스티븐 M. 윌트, CRETA, 2024)은 친이스라엘 로비가 미국의 대외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해 유명해진 책이다.

이 책은 저명한 현실주의파 국제정치학자인 저자들의 2006년 초판을 증보한 것이다. 초판 공개 당시에도 논쟁이 일었다.

이 책에서 저자들은 당시 미국의 이라크 침략·점령,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격은 미국의 국익에 해로운 결과를 낳았고, 그런 자해에 가까운 정책을 미국이 편 배후에 AIPAC(미국-이스라엘 공공문제위원회) 같은 미국 내 막강한 친이스라엘 로비가 있다고 주장했다.

영국 마르크스주의자인 크리스 하먼은 당시 이들의 주장을 이렇게 비판했다.

“[이라크] 전쟁에 진지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런 주장을 거부해야 한다. 그런 주장은 전쟁 배후의 진정한 추진력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음모론자들이 이 세상의 악행을 모두 ‘전 세계 유대인들의 음모’ 탓으로 돌릴 수 있게 해 준다.”

저자들이 미국의 공격적 대외 정책을 비판하지만, 진보적인 맥락은 전혀 없다.

저자들은 이스라엘의 건국을 정당하다고 보고,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옹호한다. 다만, 더는 이스라엘이 미국의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 아니라고 본다.

저자들은 소련과 중동을 두고 경쟁하던 냉전기에는 이스라엘이 미국의 전략적 자산이었지만, 소련이 해체된 냉전 이후에는 중동 국가들을 포섭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본다. 그 점에서



이스라엘은 미국의 중동 패권을 위한 전초기지 구실을 하는 국가다

일방적 친이스라엘 정책의 위험성을 주장하는 것이다.

당시 크리스 하먼은 이스라엘이 미국의 전략 자산이 아니라고 본 점이 문제라고 예리하게 비판했다. 저자들의 주장은 중동에서 작동하는 제국주의의 진정한 동학을 거꾸로 보는 것이다.

미국의 중동 전초기지

세계적인 석유 생산의 중심지인 중동에서의 패권은 냉전 종식 후에도 미국의 세계 패권 전략의 중요한 일부다. 중동 패권을 위해선 현지 동맹 국가가 필수적이다.

미국에게 이스라엘은 이집트·요르단·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동맹국이 갖추지 못한 이점을 갖고 있다. 그것은 이스라엘은 그 나라들과는 달리 미국의 패권 정책에 부응하다가 국내 대중 반란에 직면할 위험이 없다는 점이다.

이스라엘의 시온주의 프로젝트 자체가 미국 등 서방 제국주의의 지원을 받아 정착자 식민 국가를 역사적 팔레스

타인 영토에 완성하는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이런 특수성 때문에 이스라엘 인들은 강탈과 점령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이스라엘 국가는 늘 미국과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에게 자신들이 미국과 서방의 중동 지배에(특히 미국에) 유용한 존재(서방, 특히 미국의 중동 경비견)임을 입증하려고 해 왔다. 국내 반발 걱정 없이 굶은 일을 도맡아 해 줄 국가인 것이다.

바로 그 점이 미국 등 서방 열강이 인종청소로 영토를 확보한 이스라엘의 건국을 지지한 이유이고, (저자들의 주장처럼) 미국이 다른 친미 국가들을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정치적·경제적·군사적 후원을 해 온 까닭이며, 미국의 두 주류 정당과 거대 기업들에 친이스라엘 로비가 통하는 배경이다.

이런저런 전술적 의견 충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인종 학살을 1년 넘게 지속하는 데서 가장 강력한 후원자는 미국이다.(물론 영국, 독일 등 친미 열강의 무기 지원도 만만찮다.) 미국

이 없었다면, 전쟁의 지속도, 전선의 확대도 모두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존재가 미국의 제국주의적 이익(미국의 국익)과 무관하다는 주장은 사태의 동학을 거꾸로 보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미국 제국주의의 원죄를 벗겨 주는 효과를 낸다.

저자들이 이 책에서 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유대인 로비가 미국의 국익에 배치된다면 어떻게 그토록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이 책은 전혀 설명하지 않는다.

결국 저자들의 주장은 진정한 표적에서 눈을 돌리게 만들고, 극우와 파시즘의 반유대주의적 인종차별 이데올로기인 “유대인 음모론”에 길을 열어 주게 되는 것이다.

자본주의와 제국주의가 낳은 고통과 범죄를 소수 인구 집단에게 돌리는 음모론은 평범한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운동의 힘을 약화시킨다. 인종 학살에 맞서는 글로벌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에 이런 음모론이 설 자리는 없어야 한다.

이스라엘의 만행은 미국의 제국주의적 이해관계 속에서만 종합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스라엘의 인종 학살을 막으려면 이스라엘 국가를 분쇄해야 하고, 그러려면 제국주의 시스템에 대한 도전으로 나아가야 한다.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 아랍 지역의 노동자 대중 봉기와 혁명, 글로벌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을 팔레스타인 해방의 세 기둥이라고 보는 전망은 이런 분석에서 비롯한 것이다.

김문성

▶ 14면에서 이어짐

“궁을 태우고 왕에게 돌팔매질하는 것들이 그게 백성이냐? 그게 사람의 새끼야?” 반란에 대한 왕의 깊은 적의는 외적에 대한 적의보다 커 보이기까지 하다.

“어찌하여 순신은 죽었고 자령은 살아 있느냐?” 실제로 선조는 이순신을 고문했고 의병장 김덕령은 고문당하다 옥사했다. 선조는 그들을 정적처럼 여겼다.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선조의 장면들에서 이승만을 떠올릴 만하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시작되자 이승만 역시 서울을 떠났고, 아무 경고 없이 한강 다리를 폭파해 사람들을 죽게 했다.

같은 날 이승만은 국무회의를 열어 긴급명령 제1호를 발표했다. ‘의심스러운’ 민간인에 대한 단속과 학살을 정당화하는 것이었다.

영화 속 선조가 “항왜”(항복한 일본군)를 민란 “토벌”에 투입하는 것도 이승만과 미국이 “토벌”이라 부른 민간인 학살과 닮았다.

미국과 이승만은 일제에 부역했던 친일 군경, 우익 폭력배를 동원해 제주와 여수, 순천 등에서 수만 명을 도륙하게 했다.

영화에서 묘사한 전쟁 이후 “백성들이 시체를 뜯어 먹고 사는 형편” 역시

실록의 표현 그대로다.

1945년 해방 후에도 다수는 빈곤했지만 일제에 부역했던 지배층은 호의 호식했다.

이승만은 조봉암 등 정적은 제거했지만 일제에 이어 미군정에 협력하는 자본가와 정치인은 보호했다.

윤석열은 이런 “도살자”를 “아버지”로 모시는 뉴라이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정치적인 사람들이 영화 속 선조를 보며 윤석열을 떠올리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고위층의 위선이 판치고 정의가 결여

된 시대에는 이런 액션영화라 해도 부당함과 모욕감을 참고 지내야 하는 보통 사람들에게 큰 공감을 얻을 수 있다.

이럴 때 정치적 문제를 제기하면 지나치게 엄격할 수 있겠지만, <군도>나 <킹덤>처럼 <전,란>도 민중을 저항의 능동적 주역보다 불안한 군중에 가깝게 그린다.

하지만 많고 많은 사람들의 아래로부터의 투쟁만이 세상을 공정하고 평등하게 뒤바꿀 비결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영화 <전,란>은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다.

김현진



재한 이집트인 난민 인정 투쟁 “연대 운동을 보면서 혼자가 아니고 희망이 있다고 느낍니다”

재한 이집트인 난민들의 난민 인정을 위한 운동이 차츰 지지와 관심을 넓혀 가고 있다.

8월 법무부는 이집트인 난민 10여 명에게 무더기로 난민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난민이 아니라고 결정한 1차 심사에 대한 이의신청마저 기각한 것이다.

이들은 2011년 시작된 이집트 민주혁명에 앞장섰던 정치 활동가들이다. 무바라크 친미 독재 정부를 무너트렸던 이집트 혁명이 2013년 현 엘시시 군부 독재 세력의 반혁명 쿠데타로 무너지자, 이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다가 혹독한 탄압을 받고 한국으로 피신했다.

이들은 한국에 와서도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에서 중요한 구실을 하는 등 자유와 정의를 위한 활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법무부의 결정으로 이집트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이집트인 난민들은 곧바로 난민 인정을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한국인 활동가들과 함께 ‘이집트인 난민 인정을 위한 모임’(이하 ‘모임’)을 꾸리고 10월 5일 연대 운동을 시작했다.

이집트인 난민들이 소장을 접수한 날짜에 따라 11월부터 각자 첫 변론기일이 잡히고 있다. 모임은 향후 재판부에 제출할 탄원서를 받고 있다. 또한 소송 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한 모금을 호소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집트인 난민들의 대의에 공감하는 변호사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소송을 맡아 큰 힘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재판이 2, 3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고 각종 증거의 번역 비용도 필요해, 불안정한 처지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이집트인 난민들에게는 모금도 절실하다.

지금까지 250여 명이 탄원서에 연명했고, 240여만 원의 모금이 이뤄졌다. 한 탄원서 작성자는 “독재정권을 피해 한국에 온 난민들에게 따뜻한 환대와 연대가 있기를” 하고 지지 메시지를 남겼다. “이집트인 난민 연대”, “힘내세요!” 등의 입금자명으로 응원의 말을 전하며 모금한 사람들도 있었다.



서로의 버팀목 이집트인 활동가들이 팔레스타인 연대 구호를 선창하며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다

모임은 매주 토요일 서울에서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주최 집회 현장에서도 탄원서를 받고 있다. 집회 참가자들뿐만 아니라 주변을 지나던 시민들도 종종 관심을 보이며 유인물을 받아 가거나 탄원서 작성에 동참한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오는 10월 31일 개최하는 참교육실천대회에서 모임이 부스를 차리고 참가한 교사들에게 탄원서와 모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자리를 내 주기로 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인천에 거주하는 이집트인 난민들과 영화상영회 등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을 함께 건설하며 인연을 맺어 왔다.

여행증명서

소송에 나선 이집트인 난민의 한 명인 무함마드 알파입 씨는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해 겪는 고통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한국에서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안정된 삶이 없습니다. [난민 신청자에게 주어지는] G-1 비자가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다는 위협 속에서 살아야 하는 불안정이 너무 힘들어요.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난민 인정을 받아야지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난민 인정을 받아야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권이 만료됐기 때문에 여행증명서가 있어야 해외로 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연로하고 굉장히 아프신데,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 어머니를 꼭 뵙고 싶어요. 그러려면 난민 인정을 꼭 받아야만 합니다.”

소송에 나선 또 다른 이집트인 난민의 어머니는 지난 9월 추석 때 8년 만에 아들 얼굴이라도 보려고 한국에 왔으나, 출입국 당국의 입국 거부로 얼굴도 보지 못하고 인천공항에서 머물다 돌아가야 했다. 출입국 당국은 그녀의 아들이 난민 신청자임을 파악하고는, 그녀도 난민 신청을 할까 봐 입국을 막은 것이다.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에 열성적으로 참가해 왔던 한 이집트인 난민이 오랫동안 난민 인정이 되지 않는 고통을 견디다 못해 최근 네덜란드로 출국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네덜란드는 한국보다 난민 인정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이집트인 난민 인정을 위한 운동이 성공적으로 벌어진다면 불안정함 속에서도 팔레스타인 연대 활동에 헌신하고 있는 이집트인 난민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

알파입 씨는 연대 호소에 동참해 준 사람들 덕분에 희망을 갖게 됐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연대 운동, 모금과 탄원서 작성을 보면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구나, 굉장히 많은 한국 사람들이 연대해 주고 있구나’ 하고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한편으로 안심도 되고 행복도 느낍니다. 그전에는 희망이 있기를 바라 왔는데, 이제는 연대 운동을 보면서 희망이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연대해 주는 분들, 앞으로 연대해 줄 분들에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여러분들 덕분에 한국을 제2의 조국처럼 여길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위대하고 훌륭한 일입니다.”

이집트인들의 난민 인정을 위한 운동을 우리 일처럼 지지하고 지원하자.

임준형

함께합시다!

이집트인 난민 인정
소송 지원
온라인 탄원서 작성



<https://bit.ly/for-egyptian-refugees>

소송 비용 등 마련 모금

카카오뱅크 3333-31-8210896 (김광일)